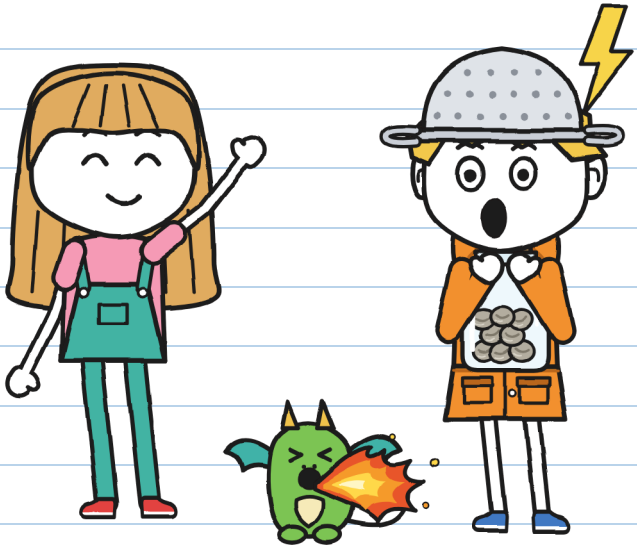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Lui Eriksson



(구너의 공책)

사이즈 L
고급 · 11+

불가능 배달 ·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글과 그림 : Lui Eriksson

사이즈 L · 고급 · 11+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ui Eriksson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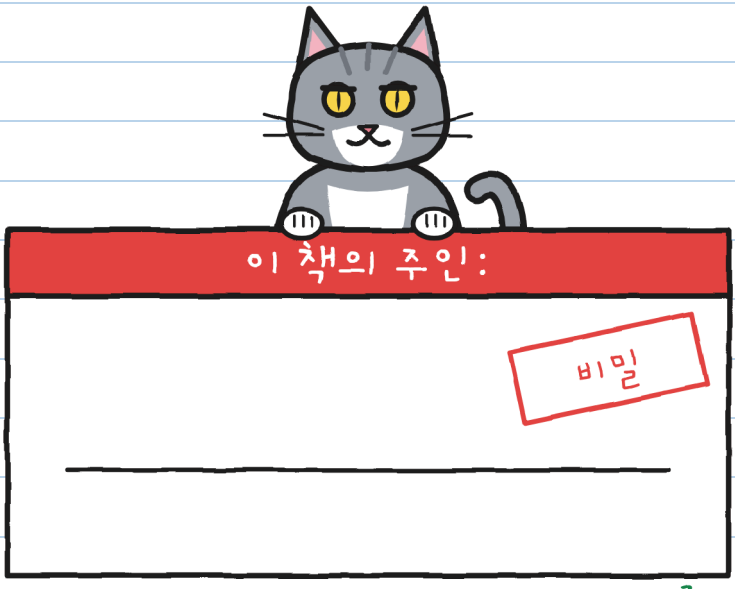
시리즈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 '이 택배는 문다'.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다친 천둥은 없다. —J.



다른 누구 것도 아니야. -J.

이걸 주웠다면, 천둥이 치기 전에는 열지 마.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너는 따라 하지 마. 몇 쪽에 걸쳐 이어지면 어디부터와 어디까지라고 적혀 있어. 진짜 폭풍이 칠 때는 76쪽이 시키는 대로 해. -J.

등장인물



구니. 토요일마다배달하는 아이. 폭풍 사냥꾼(그런 셈이다). 이 공책의 주인이다.



홀리타. 번개와 천둥 사이의 초를 센다. 초록색으로 쓰고 J. 라고 서명한다.



부스러기. 아기 용. 구니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한다. 뭐든.



토요. 번개배송 배달원. 자전거로 배달한다.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플로라 아줌마. 운하길 9번지의 정원사. 돌멩이에는 서명하지 않는다.



베라 아줌마. 플로라 아줌마네 옆 용의 집에서 용을 돌본다. 부스러기는 아줌마와 함께 산다.



마라. 불가능 배달의 주인. 마녀 모자를 쓴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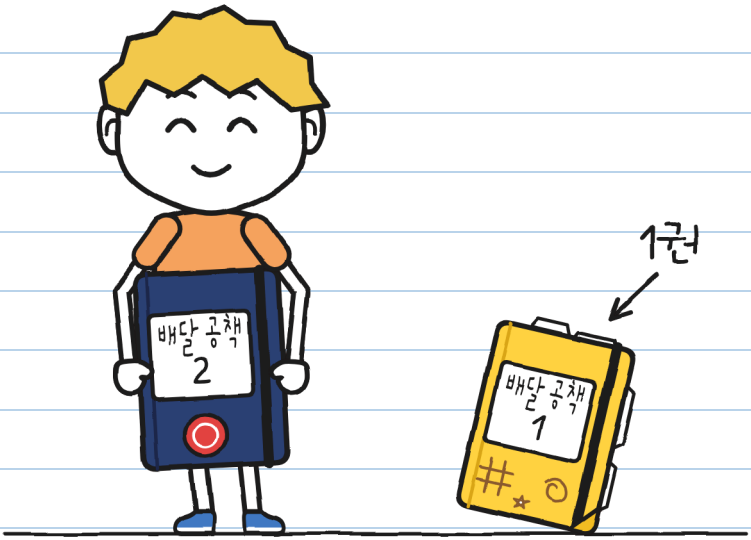


R. 아무도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를 보낸다.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배달 공책 2
주인 : 구니

공식.

공식이라는 건 내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야. 공식적으로.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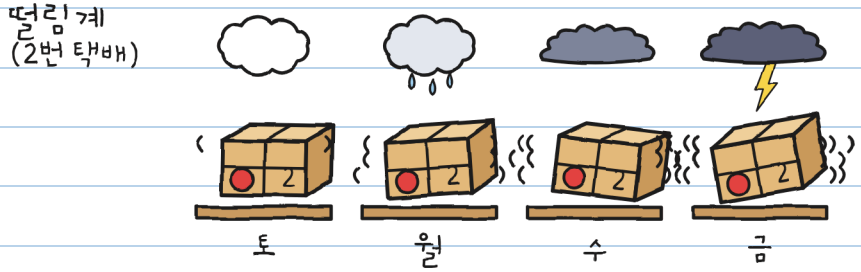
공책 1권은 다 썼다. 꽉 찼다. 이건 가게 주인 마라 아줌마가 줬다. 표지에는 가게 도장이 찍혀 있다. 공식 공책에는 그림을 그리면 안된다고 한다. 두고 보자.

제1장

폭풍 사냥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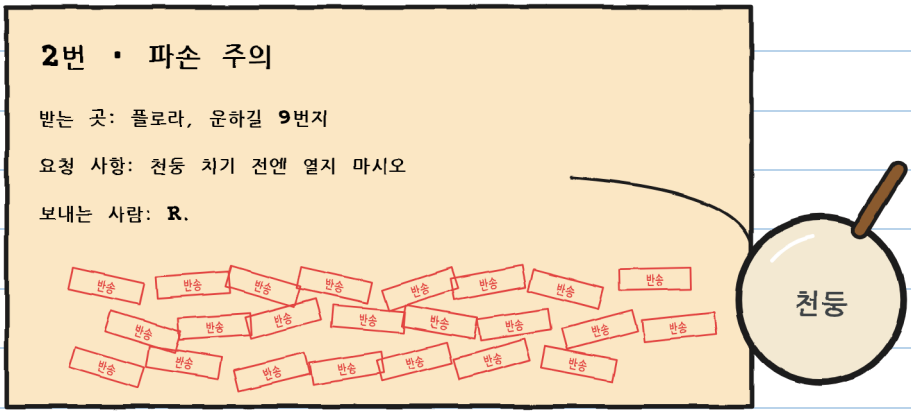
마라아줌마 가게에는 덜덜 떠는 택배가 하나 있다. 지난 토요일부터 그랬는데, 날마다 조금씩 더 심해진다.
나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훌리타와 내가 마지막으로 배달한 택배는 알이었다. 이제 그 알은 부스러기라는 이름의 아기 용이 되어 내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한다.

우리 집 맞은편 가게에는 돌아온 택배가 열아홉 개 남아 있다. 그중 하나는 기다리다 지친 모양이다.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야. 폭풍이 오니까 떠는 거야. 토요일 저녁 6시에. 일기예보를 여섯 번이나 확인했어. —J.

돌아온 택배는 언제나 돌아오는 택배다. 받는 사람이 라벨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휼리타의 초록색 매직펜 같은 것)로 서명하지 않으면, 해 뜰 때 날아서 선반으로 돌아간다. 이 택배를 전부 보내는 사람은 똑같다. R.이다.



2번 택배에는 '반송' 도장이 스물세 개 찍혀 있었다.

스물셋. 두 번 세어 봤어. —J.

"내가 스물세 번 배달했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런데 폭풍이 칠 때 한 건 한 번도 없었어."

토요일 10시, 마라 아줌마는 2번 택배를 두 손에 들고 계산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요도 와 있었다. 토요일마다 우리 셋은 가게에서 벌을 받는다. 1번 택배를 허락 없이 배달한 벌이다.

"이건 말이야."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너희가 배달해. 오늘 오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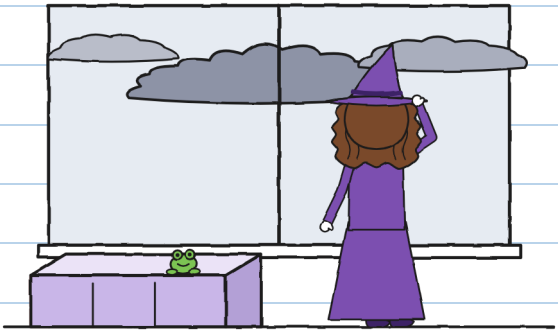


훌리타가 얼마나 크게 뛰었는지 '남은 택배 19' 팻말에 닿을 뻔했다.

마라 아줌마는 조건을 세 가지 걸었다.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1. 5시에 출발해, 폭풍이 오기 전에. 그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플로라 아줌마 집에 있어.
2. 너희 가족은 이미 알고 있어. 플로라 아줌마도 알고.
3. 규칙은 라벨에 쓰인 그대로야. 천둥 치기 전에는 열지 마. 그리고 머리 위에서 치는 천둥이어야 해. 멀리서 치는 천둥은 안 돼.

"같이 안 가요?" 훌리타가 물었다.
"난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마라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고 진열창 너머로 점점 잿빛이 되어 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 —J.

그때 훌리타가 나를 쳐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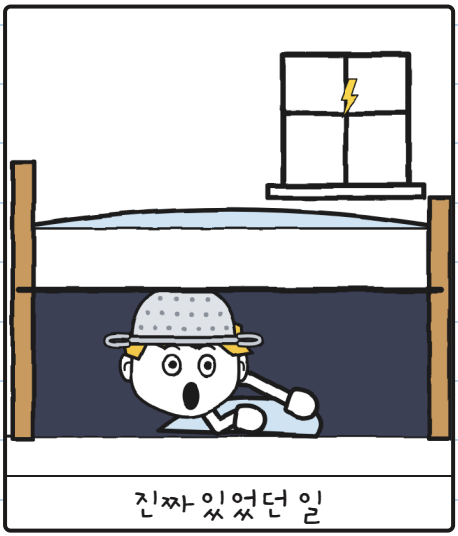
"넌 폭풍 좋아해?"

그래서 누가 그렇게 쳐다볼 때 다들 하는 말을 했다:

"엄청 좋아해. 예전 동네에서는 전문 폭풍 사냥꾼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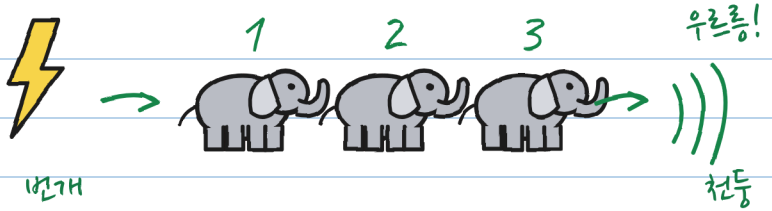
내가 한 말



진짜 있었던 일

침대 밑 전문가. —J.

훌리타가 폭풍을 세는 법을 알려 주었다. 늘 그렇듯 허락도 없이 내 공책에다: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코끼리 셋...

코끼리 4마리 = 4초

코끼리 3마리 = 1킬로미터 (대충)

코끼리 0마리 = 머리 위!

↑ 이게 라벨에 쓰인 천둥이야.
멀리서 치는 천둥은 택배를 못 열어.

코끼리가 더 많다: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다.

천둥소리가 들리면, 멀리서 나는 소리라도: 안전한 곳으로!

아는 건 덜 무서워. —J.

나는 아무것도 셀 필요가 없었다. 나는 폭풍을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적어 두었다.

토쇼는 내 어깨 너머로 라벨을 읽더니 가방의 작은 글씨를 보여 주었다.

"번개배송은 폭풍이 칠 때는 배달 안 해."

"아직 폭풍은 안 쳤잖아." 훌리타가 짖었다.

토쇼는 작은 글씨를 다시 훑어보았다. '아직'이라는 말은 없었다. 그래서 토쇼도 같이 갔다.



작은 글씨, 큰 핑계. —J.

5시에 나는 비옷을 가지러 우리 집으로 건너갔다.

"주황색 비옷 입어." 우리 엄마가 문가에서 말했다. "정말 갈 거니? 넌 천둥이 칠 때면…"

"엄마, 다녀올게!"

넌 천둥이 칠 때면… '뭐?! —J.

우리는 큰 다리를 건넜다. 밤이면 배들이 지나가도록 들어 올리는 다리다. 하늘은 점점 더 새까매졌다. 다리 한가운데를 지날 때 훌리타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물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운하와 훌리타는 사이가 안 좋다.



아주 멀리서 하늘이 번쩍했다. 훌리타는 아무 소리도 들리기 전에 코끼리를 세 마리 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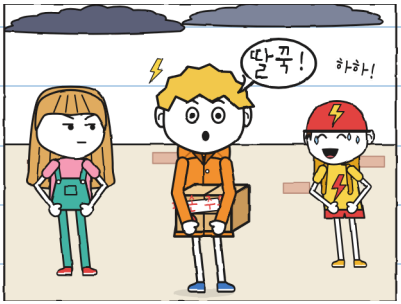
우르릉.

"저 번개는 10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쳤어." 훌리타가 말했다. "일기예보에서 폭풍이 6시에 온댔어."

"천둥이 쳤다!" 토뇨가 말했다. "이제 열어도 돼?"

"저건 택배를 여는 천둥이 아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라벨에 쓰인 천둥은 번개와 동시에 치는 천둥, 코끼리 0마리야. 하지만 소리가 들리잖아, 그걸로 충분해. 어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운하길까지 달렸다. 나는 천둥소리를 하나도 못 들은 척했다.

"방금 딸꾹질이야?" 훌리타가 물었다.
"아니." 내가 말했다. "딸꾹!"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천둥이 칠 때만 그렇다. 천둥이 칠 때마다 딸꾹질이 줄줄이 터진다. 3초에 한 번씩. 폭풍이 머리 위에 있으면 멈추지 않는다. 무서운 게 아니다. 내 몸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멋대로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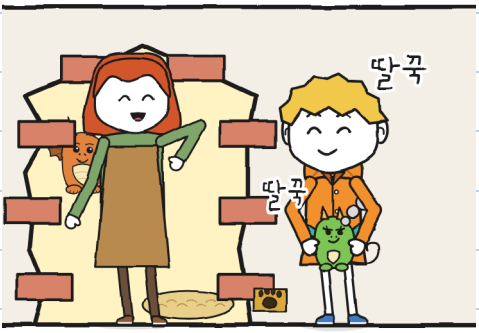
그걸 무서운 거라고 해. —J.

베라 아줌마는 플로라 아줌마네 바로 옆 용의 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요일마다 부스러기는 나와 함께 산책한다.

"플로라네 집까지만이야. 부스러기에겐 첫 폭풍이거든."

베라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며 부스러기를 내 품에 안겨 주었다. "부스러기는 구니 네가 하는 건 뭐든 따라해. 네가 느끼는 것도. 무서워하면 잡아당기지 마. 꽉 붙잡으니까. 폭풍이 지나가면 담장을 세 번 두드려. 그러면 데리러 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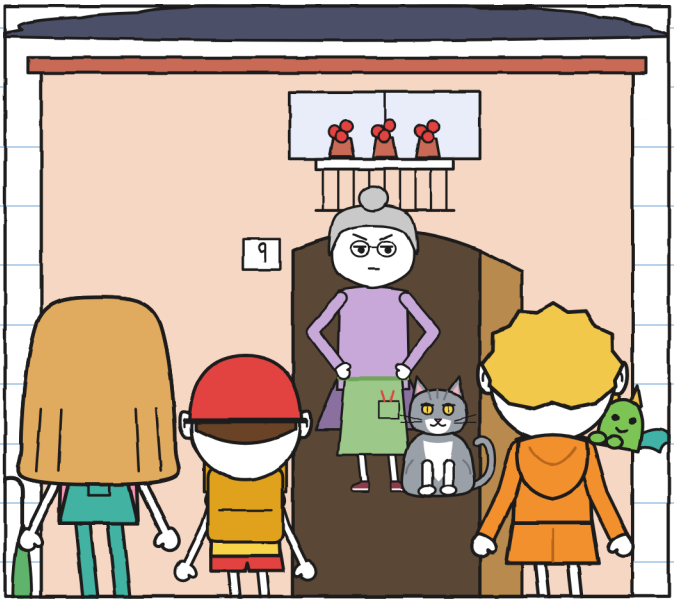
"저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내가 말했다. "폭풍이 엄청 좋거든요."



멀리서 천둥이 쳤다.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는데, 콧구멍에서 연기가 났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렴." 베라 아줌마가 말했다.

플로라 아줌마네 집은 제라늄 집이다. 지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용의 집 문을 찾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우리를 내려다보던 바로 그 발코니가 있는 집이다. 그 문은 벽처럼 생겼다.



플로라 아줌마는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상자를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부스러기를 보았다.

"베라네 아기 용이구나. 내 고사리를 그슬리지 않게 해 다오." 아줌마가 말했다. "들어오렴, 비가 온단다. 그런데 미리 말해 두는데, 난 돌멩이에는 서명 안 해."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사이즈는 여섯 가지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쪽수와 그림이 같다. XL은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방식만 다르다.

사이즈 XXS · PRE-A1
훌리타가 일곱 번째 씨앗을 잡아.

사이즈 XS · A1
바닥에 씨앗이 하나 남아 있었다.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S · A2
또 번개가 쳤다. 바닥에는 씨앗이 하나만 남아 있었다.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M · B1
다음 번개가 칠 때 씨앗은 하나만 남아 있었고,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L · B2
다시 번개가 쳤을 때 바닥에는 씨앗이 딱 하나 남아 있었고,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각자 자기 사이즈로 폭풍은 같아.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